



똥두 1·2(전 2권)

1. 나는 왜 나일까?
2. 니가 좋다. 니랑 있으면 나도 좋다

국무영 글·그림
 반양장/ 148*210/ 각 권 292쪽/ 각 권 16,000원
 출간일: 2020년 12월 21일/ 시리즈: 비룡소 그래픽 노블
 1권 ISBN 978-89-491-3512-0 2권 ISBN 978-89-491-3513-7 77810
 978-89-491-3514-4(세트)

“나는 왜 하필 나로 태어난 걸까?”

열다섯의 거대한 우주를 뚫고 나아가는
 ‘똥두’ 동두희의 좌충우돌 로맨스 성장 만화!

십 대의 삶은 왜인지 격렬하다. 어느 때의 내가 진정한 나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십 대의 나는 나다움의 가장 최초임이 분명할 것이다. -윤태호(만화가, 『미생』 작가)

‘만화란 정말 근사한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을 『똥두』와 같은 작품을 만날 때마다 생각한다.
 -연상호(영화감독, 『부산행』 감독)

스스로 온전히 좋아할 수 없는 우리의 십 대 시절을 그린다.
 -의외의사실(만화가, 『퇴근길엔 카프카를』 작가)

조금은 거칠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서툰 중학생 동두희가 첫사랑과 우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점차 자기를 긍정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국무영 작가의 그래픽 노블 『똥두』(전 2권)가 출간되었다. 2012년 지구 멸망설이 돌던 해의 5월, 두희는 ‘멸망하기 전에 단 하루라도 예뻐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뚜렷한 삼자 이마와 장군 턱 두 가지를 동시에 타고난 이상 자신에겐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푹 푹 내쉰다. 두희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집안에서 하필이면 마음에 안 드는 생김새로 태어나 성격마저 괴팍한 자신의 모든 게 못마땅하기만 하다.

학교와 집, 친구와 가족이라는 조그만 생활 환경에서 보내게 되는 대부분의 십 대 시절은 자기 안으로 함몰되고, 자기혐오에 빠지기 십상인 환경이다. ‘나는 왜 나일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알게 모르게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때론 절망한다. 급기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목적인 고민에

까지 이르게 되면 고통과 허무는 절정에 달한다. 하지만 이 힘겨운 시간을 겪고 난 뒤에 돌아보면 한 뼉 더 성장한 자신이 있다.

국무영 작가는 중학생 동두희가 겪는 쓰라린 성장통의 과정을 흐릿한 연필 선 위에 옅은 색채의 수채화로 채색한 개성 있는 그림체로 그려 냈다. 조금은 요란할 수밖에 없는 폭풍 같은 시기를 다룬 서사와 여릿하고 서정적인 그림이 만나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했다. 2012년 경상남도 창원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감 나는 사투리는 장면 장면을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동두희라는 캐릭터가 창조되었을 때, 이 이야기는 '자기혐오에 갇힌 중학생이 자기 긍정으로 방향을 살짝 트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 변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보니, 이 이야기는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똥두’란 별명부터 외모, 성격, 가족까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중학생 동두희의 쓰라린 인생살이

슈퍼마켓에서 천 원을 더 거슬러 받고도 모르는 척하고, 좋아하는 고등학생 오빠 앞에서 아빠를 외면한 날 두희는 악몽을 꾸다. 머리에 똥이 가득 차 평생 격리 시설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꿈. 마음과 달리 자꾸만 못한 행동이 튀어 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다 죄책감에 휩싸여 꾸 악몽이다.

자신이 도대체 왜 이따위로 생겨 먹었는지 오갈 데 없는 분노와 이렇게 태어나고 싶진 않았다는 괜한 억울함과 설움은 날 선 말이 되어 부모님을 향하기도 한다. “쓸데없이 왜 나를 낳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데! 차라리 낳지를 말든가!” 울며불며 소리친다. 그런 뒤엔 또다시 못된 말을 뱉어 버린 자신이 싫어 자학의 굴레에 빠져든다.

하지만 자학은 결코 자학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두희는 붙잡을 무언가를 찾아낸다. 지루하고 재미없기만 한 일상을 잠시라도 잊게 할 방법을 스스로 마련한다. ‘우리 인생에 그나마 재밌는 사건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뿐’이기에 사랑을 발견해 낸다. 자기를 도무지 좋아할 수 없었던 두희는 결국 다른 누군가를 좋아해야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

“이유가 없어도 허무하지 않은 건 사랑밖에 없죠?”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난생처음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사건

두희가 다니는 팔용여자중학교의 원편에는 남녀공학인 누리중학교가 있다. ‘변기통’이란 별명에도 개의치 않는 순한 성격의 기동이는 자기와는 다른 두희가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 두희 역시 다소 엉뚱한 구석이 있는 기동이가 궁금하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다정한지, 어째서 습관처럼 늘 착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로가 궁금하던 두희와 기동이는 자연스레 사랑에 빠지고 생애 첫 연애를 시작한다. 두희는 처음으로 나 아닌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둘은 서로의 개성을 뚜렷이 알아보고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면면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이제껏 단점인 줄로만 알았던 점이 어느새 나만의 개성이자 매력으로 뒤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이기에 어설피고 조금 서툴지만, 열정적이고 풋풋한 사랑을 펼쳐 나간다. 알콩달콩하기도 조마조마하기도 한 둘의 연애는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와 웃음을 동시에 자아낸다. “내 좋아하는 이유 백 가지 말해 봐.” 하는 두희의 말에 기동이는 “그냥 니라서 좋아하는 건 안 되…나?” 하고 조심스레 묻는다. 두희는 ‘내가 나서서 기동이가 나를 좋아한다면 어쩌면 내가 나인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느낀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도 충분히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간다. 두희는 기동이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좋아지는 것 같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하필이면 나로 태어난 이유는 없을지언정 사랑만은 이유가 없어도 허무하지 않다.

‘나’에 관해 탐구하고 표현하는 글쓰기, 내가 누군지 조금씩 알아 가는 지난한 시간을 통과하는 여정

두희는 일기부터 시 쓰기까지 글 쓰는 일에 흥미를 보인다. 작품 곳곳에는 비뚤배뚤한 글씨체로 적힌 두희의 일기장이 담겨 있다. 즉, 두희는 자기반성과 성찰에 뛰어난 아이이다. 일기는 두희를 지탱해 주는 힘이기도 하다. 쏟아 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에 써진 글들은 두희의 내밀한 마음의 결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 어쩌면 두희는 자기를 사랑해 주고 싶기에 그만큼 자신에 관해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아이인 만큼 자신에 대한 기대와 욕심도 넘쳐 남들보다 조금 더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두희는 일기에서 나아가 시를 쓰는 일에도 재미를 붙인다. 엉뚱한 발상으로 시작해 주변인과 사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해 나간다. 바퀴벌레에 아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고, 기동이를 향한 애뜻한 심경을 시로 담아내기도 한다. 그 밖에도 슈퍼마켓 할머니에게 보내는 쪽지, 기출한 친구에게 전하는 스케치북 편지 등 두희의 글은 꾸밈없고 솔직하다. 그리고 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은 무사히 전해지고 가닿는다.

끊임없이 ‘나’를 탐구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게다가 중학생 동두희가 던지는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허무하고 쓰라린 인생에 관한 실마리는 기동이로부터 비롯되어 사랑에서 찾았을지언정, 결국 그 일을 해낸 사람은 두희 자기 자신이다. ‘나’를 파고드는 일은 날카롭고 아프고 외로운 일이지만, 두희는 겁 없이 자신을 마주한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끊임없이 부딪치고 나아가는 인물이다.

“연잎은 물 위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나 봐.” 뽕족하게 자라난 연잎이 넓고 둥글어지기까지, 내가 아닌 것들로 시선을 옮겨 가는 다정한 확장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관해 부지런히 고뇌해 온 두희는 어느덧 서서히 시야가 확장된다. 자기 문제에만 빠져 살던 아이에서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한 뼘 성장한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기동이가 안쓰러워 슬플 땀 울어도 된다는 노랫말을 들려주고, 기동이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꼭꼭 눌러 담은 시 한 편을 바치기도 한다. 노래와 시와 눈물은 소용이 없어 보여도 소용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임을 들은 함께 배워 나간다.

좋아하는 기동이에 이어 두희의 시선은 가족에게도 닿는다. 그토록 지긋지긋해했는데도, 정작 가족에 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줄곧 한집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답할 수 없었다. ‘절대로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인간들을 신이 아무렇게나 묶어 가족으로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 어느새 조금씩 자라난 마음씨로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나날을 반성하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넨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가족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순간 두희는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살아 있다는 게, 기동이와 만난 게, 해가 뜨고 진다는 게, 이 모든 것이 기적 같다. 그리고 ‘어쩌면 2012년 12월 21일 정말로 지구가 멸망해 버린 건 아닐까?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지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기 위해, 내 문제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 가기까지 두희가 뚫고 지나온 많이 울고 많이 웃은 이 시절의 경험들은 두희의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나와 세상에 관해 한 번쯤 의문을 품어 본 이들에게 두희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공감을 자아낸다. 진솔한 서사와 코믹한 상황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내가 나로 태어났다는 부정할 수도 어찌할 수도 없는 사실을 차차 긍정하게 되는 이야기는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시점의 우리를 깊이 위로하며 따스하고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또 앞으로 같은 고민을 겪어 나갈 십 대들에게 솔직하고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요란히 응원을 건넨다.

◆ 추천의 말

십 대의 삶은 왜인지 격렬하다. 태어나 보니 만나게 된 마음에 안 드는 부모와 내 이름...과 그에 따른 별명, 전생까지 따져 가며 충분히 자신을 비판하고서야 하루가 끝나 간다.

십 대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투성이지만 대개의 십 대는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온갖 단점(주관적인 생각으로)을 긁어 모아 비극의 주인공으로 치장한 후, 사뭇 초연한 마음으로 ‘나 따위가...’라며 자학으로 기워진 이불을 덮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국무영 작가의 작품 『똥두』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투성이인 ‘나’가 나온다. 하지만 비극의 총체일 것만 같은 나에게도 운명적 만남은 준비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삶의 이유일 것이다.

『똥두』는 서정적으로 보이는 그림과 다르게 약간 사나운, 매섭고 단호한 농담이 널려 있는 작품이다. 상처에 붙은 피딱지를 계속해서 뜯어내는 아이의 자학적인 손놀림처럼 국무영 작가는 자신이 지나왔을 십 대를 후벼 판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게 마련이고 시간은 쉽 없이 지나가며 살아갈 날만큼 살아온 날이 충분해졌을 때 문득 뒤돌아보면 기특하기도, 살짝 부끄럽기도, 못내 아쉬기도 한 내가 곳곳에 서 있다. 어느 때의 내가 진정한 나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십 대의 나는 나다움의 가장 최초임이 분명할 것이다.

-윤태호(만화가, 「미생」 작가)

‘만화란 정말 근사한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을 『똥두』와 같은 작품을 만날 때마다 생각한다. 수작업으로

된 그림과 진솔한 서사가 만나서 한편으로는 에세이 같고 한편으로는 판타지 같은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했다.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통과했을 그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그런 작품이 책으로 출간된다는 사실이 반갑다. 책장에 꽂아 놓고 일상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들춰 보고 싶은 책이다.

-연상호(영화감독, 「부산행」 감독)

동두희는 중학생이다. 외모에 자신이 없고 세상에 대한 의문이 가득하지만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도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실감 나는 대사와 포근한 그림 속에서 동두희는 거칠고 서툴지만 진지하게 자신만의 길 찾기를 시작한다.

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데다 여기저기 부딪치며 큰소리를 내고 다니는 동두희를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십 대는 사랑스럽지 않다. 대체로 불균일하고 불안정하며 무언가 뻘쬂뻘쬂 튀어나와 있고 붙잡을 무언가를 찾아 흔들리고 떠다닌다. 그것이 스스로도 온전히 좋아할 수 없는 우리의 십 대 시절이고 이 책이 그리고 있는 동두희의 모습이다. 그 시절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다.

-의외의사실(만화가, 『퇴근길엔 카프카를』 작가)

◆ 1권 차례

프롤로그 ... 3

1화: 2012년 늦은 봄부터 시작된 이야기 ... 13

2화: 열다섯은 첫사랑에 빠지기 좋은 나이이다 ... 33

3화: 지금 당장 깨어나세요 ... 53

4화: 그 애는 뭐랄까... 좀 현실감이 없는 애였다 ... 73

5화: 개는 번개 쿠키 안 먹어도 되겠다 ... 97

6화: 그 애는 뭐랄까... ... 119

7화: 나도 이런 내가 싫다고! ... 139

8화: 싸우지 않는 사람보다 싸우는 사람이 더 좋아요 ... 161

9화: 나는 '희' 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좋더라 ... 181

10화: 별명이 있다는 건 인기가 있다는 거야 ... 205

11화: ※주의 사항: 혼자 먹으면 효능이 없음 ... 229

12화: 같이 들어가 볼래? ... 247

13화: 우리 인생에 그나마 재밌는 사건은 누군가 좋아하는 것뿐이다 ... 269

◆ 2권 차례

14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걸? ... 7

15화: 다정하게 대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한가 보다 ... 27

16화: 궁금하면 알고 싶고, 알고 나면 신기한 게 많다 ... 51

17화: 어쩌면 정답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 75

18화: 나는 왜 하필 나일까 ... 95

- 19화: 울어 봤자 소용없는 일이 있거든 ... 115
 20화: 바퀴벌레랑 말이 통하면 안 죽어도 될 텐데 ... 141
 21화: 소용이 없어 보여도 소용이 있거든 ... 163
 22화: 내 머리에 똥 빼는 쿠키도 만들어 줘 ... 187
 23화: 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좋다! ... 207
 24화: 모든 건 다 불행이다. 다행인 건 아무것도 없어 ... 231
 25화: 어쨌면, 정말로 지구가 멸망해 버린 건 아닐까? ... 249
 에필로그 기동이는 여기에 없다 ... 275
 작가의 말 ... 286
 추천의 말 ... 288

◆ 작가 소개

국무영 국내산 무농약 박재영, 줄여서 국무영.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만화 교육을 병행하며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똥두』는 작가의 첫 만화책이다.

2008년 단편 애니메이션 「창조기」

2009년 단편 애니메이션 「Find Me」

2011년 개인전 「Find Me」

kookmooyoung.com

